

代의 秀作이라 推定되며 저 保寧 聖住寺址石塔의 樣式系列에 두어야 할 것이다.

實測值 總高(現存)約3m

1、基壇部

• 基壇下臺……未詳 • 基壇上臺 上臺中石……高六〇cm 幅九八cm 甲石……厚七cm 幅(長)一一七cm 副椽一一三cm 屋身괴임……厚一三cm 一邊長七〇cm (上部層節一層六四cm 二層六〇cm)

2、塔身部

• 一層 屋身石……高五一cm 幅(一邊長)五六cm 屋蓋石……厚(高)三七cm 檐下長(一邊)一〇六cm 頂上一邊長五四cm
 • 二層 屋身石……高一八cm 幅(一邊長)四四cm 屋蓋石……厚(高)三三cm 檐下長(一邊)七八cm 頂上長四四cm
 • 三層 屋身石……缺失 屋蓋石……厚(高)二八cm 檐下長(一邊)七三cm 頂上一邊長三二cm

3、相輪部(缺失)

三、其他石造物

1、石佛座像……草屋內에 奉安된 것이니 頭部는 喪失되고 現存은 後補한 것이다. 左肩偏袒의 法衣를 着하였는데 衣文은 굵고 雄健하며 結跏趺座에 觸地降魔印을 結하였으니 如來像인 것 같고 手法은 前記石塔과 同時代인 新羅末頃의 造成으로 推定된다.

2、石造佛座臺片……其一是 前記草屋 앞에서 있는 槐木下에 放置된 것으로 八角形의 各面에 秀麗한 眼象을 새기고 그 眼象內에는 動物을 浮刻하였고 그리고 流麗한 單瓣伏蓮紋을 彫刻한 것인즉 佛座臺의 下臺石으로 推定된다.

其二是 前記草屋의 出入門의 踏階石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破損이 甚하다. 下部에 八角形의 層節받침이 보이며 中臺石에 맞도록 하였고 複瓣仰蓮紋이 彫刻되었으니 各花瓣內에는 또 精妙한 文樣이 修飾되었으며 上面은 佛像을 安置할 수 있게 곱게 다듬어져 있는즉 佛座臺의 上臺石으로 推定된다. 中臺石은 缺失되고 上下臺石만이 殘存하는 것인

데 彫刻이 精妙하고 手法이 秀麗하여 優作에 屬하는 것으로 이는 前記石佛座像의 臺座인가 한다.

이 밖에도 石燈殘石과 其他 여러가지 石造物片이 있으나 筆者 調査當日 時間이 없어 充分한 調査를 하지 못하였다. 後日 再調査를 要하며 이곳이 水利組合의 設置 豫定地로 되어 있어 遺物을 移轉한다 하기에 于先 調査現況을 記述하여 둔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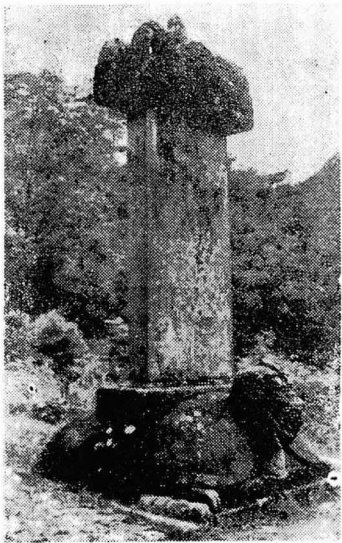
- ① 「初層屋身괴임石」의 特設例는 高麗末의 令傳寺址 普濟尊者 舍利塔에서도 볼 수 있으니 그 樣式繼承에도 注意되어야 하겠다.
- ② 국보도록 제五집 圖版九二、九三、九四 및 同解說 參照
- ③ 前掲書 圖版九五 및 同解說 參照

覺淵寺 遺物調査略報 (下)

鄭 永 鎬

二、通一大師塔碑

覺淵寺에서 寶蓋山 溪流를 따라約二十分쯤 올라가면 松林우거진 平坦한 臺地에 碑石一座가 보인다. 龜趺와 螭首를 具存한 完形이나 碑身의 銘文은 23以下가 거의 磨滅되어 哀惜하다. 一石으로 된 龜趺에는



眼象과 伏蓮의 彫刻이 整然한 碑座가 있고 六角形의 龜甲紋內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으며 如意珠를 물고 있는 龍頭의 各部 彫刻은 雄渾하다 할 것이다. 螭首는 下面에 낮은 角形

二段의 받침과 四分圓의 물딩이 碑座의 그것과 對稱的이며 仰蓮도 같은 手法이고 四面의 龍트림이 雄健한 頂上에는 寶珠가 完全하다. 周圍石垣이나 地臺의 築石으로 보아 原位置일 것이며 그러므로 各部保存도 良好하다. 各部樣式으로 보아 新羅下代의 手法를 踏襲한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 碑石의 建立年代에 對하여는 「朝鮮金石攷」에서 高麗 光宗九年八月부터 十一年三月(九五八—九六〇)年間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 記錄에서는 陰刻된 碑文을 二六〇餘字 判讀한 것으로 報告되었으나 筆者가 調査한 바로는 碑身의 靑苔를 除去하고 細密히 再調한다면 그 以上 훨씬 더 많은 字數의 判讀이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三、石造浮屠(傳通一大師舍利塔)

塔碑에서 後便山峰으로 約三十分 올라가면 寶蓋山小峰山에 倒壞된 채 遺存한다. 五石의 塔材가 散在하나 各部가 完存하여 復原이 可能하다. 八角臺石위의 八角眼象石까지 一石이며 그 위에 復瓣伏蓮石이 놓였는데 竿石(中臺)이 놓이는 部分에 二段의 받침과 높은 괴임 一段이 刻出되었 다. (高十七·五cm) 上臺는 下面에 二段角形과 一段圓弧로 받침하고 仰蓮은 下臺와 같이 十六瓣이나 形態는 單葉이다. 塔身은 各面마다 隅柱가 表現되었으며 前後二面에는 門扉形의 長方額을 마련하고 그 內를 彫飾하였다. 屋蓋石은 下面에 角形二段 四分圓의 물딩과 仰蓮等 四段으로 받침을 삼았으며 八角추녀 끝마다 귀꽃이 있었으나 모두 破損되어 그 部材가 散亂하다. 落水面의 八角마다 合角머리 表現은 뚜렷하고 頂部에는 十六瓣의 單葉蓮華紋이 둘러진 中央에 立狀形의 八瓣單蓮으로 露盤部를 刻出하고 있으며 中心部에 椽柱孔이 있다. 拜禮石은 一石으로 完全한 바 前後側面에는 眼象이 二區씩 左右에는 一區씩 陰刻되었 으며 上面中央에는 八瓣의 單葉伏蓮이 陽刻되었다.

上下臺 및 屋蓋石의 構造나 眼象과 蓮瓣等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地臺石一邊長七〇 眼象石一邊長五三·五 伏蓮石一邊長五二 地表上高六 高 一六·五 高 二二 上臺下一邊長三〇 塔身一邊長二六 屋蓋一邊長六一 高 二二 高 二五 高 四四 厚四八이다.

復原하면 總高約二·五m의 端雅한 浮屠일 것인 바 傳稱이 通一大師舍利塔이라 함에 있어서는 相互間 그 位置나 各部手法이 같은 年代感에서 過言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實證의 人資料가 調査되었으면 좋겠다.

四、龜趺와 屋蓋石

毘盧殿에서 東北方耕作地로 約百m에 龜趺約二百m地點에 屋蓋石이 各一區씩 遺存하는데 모두 近來의 出土物이라 한다. 龜趺 옆에는 方形礎石과 瓦片들이 露出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原來 碑閣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龍頭는 別造인데 奪取當하고 없으며 큼직한 六角의 龜甲紋內에는 細彫蓮華紋이 陽刻되어 있고 太彫雲紋위에 碑座가 마련되었는데 前後側面에는 四區씩, 左右側에는 二區씩의 眼象이 있다. 下部는 埋沒되어 알 수 없다.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通一大師塔碑보다 앞서는 羅末麗初로 推定된다. 屋蓋石은 八角인데 轉角이 鈍厚하나 反轉이 있다. 落水面의 合角머리가 뚜렷하고 大小三段의 받침의 露盤上에는 鼓形의 寶輪이 刻出되었는데 그 側面에는 三條帶의 四處에 花紋이 彫刻되어 있고 上部에는 徑一九cm의 圓孔이 있다. 年代는 麗初로 推定된다.

實測值는 (cm)……碑座一四八×五二 屋蓋一邊長六 短孔一二三×二六 屋蓋 厚四八이다.

五、其他 遺物

毘盧殿前庭에 石彫物 四片이 있는데 그 中二石은 蓮華紋의 彫刻이 뚜렷한 方形石材로 石燈下臺와 塔材로 推定되었다. 現大雄殿으로 가는 階左右에 놓인 四分圓形의 欄竿石은 原位置는 아니나 잘 收拾되어 完形으로 남아 있다. 東南方五百m 隣近에는 李朝代의 橢圓形浮屠二基가 남아 있다. 毘盧殿內에는 銅製禁口가 있는데 表面에는 圓條가 三條 있으며 五處에 梵字가 陽鑿되었다. 徑六十cm로 飯鍾으로서는 比較的 큰 편이나 年代는 近世로 推定된다.

以上 本誌前號부터 覺淵寺現存遺物을 調査한 略報로서 몇基의 石造物을 中心하여 紹介하였다. 이곳 一帶는 未踏地로서 이 寺利도 初踏인 바 앞으로 再調의 機會를 逮어 碑文의 좀더 많은 判讀과 埋沒된 많은 遺物의 發掘調査에서 加一層 貴重한 文化財收拾이 實現되었으면 좋겠다.